

[ 북 스 ]

어린이 책꽂이

▲올빼미야, 넌 어떻게 사니? = 올빼미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어린 금눈쇠 올빼미가 엄마 새와 아빠 새를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짝을 만나 가족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금눈쇠 올빼미의 생애를 관찰할 수 있다. <소년한길·1만원>

▲우리식탁 지키기 프로젝트-고추먹고 맴맴(전 4권)=건강을 해치는 유해식단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펴낸 '우리식탁 지키기 프로젝트'.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린 '아이들이 돼지로 변했어요', '고추먹고 맴맴', '꼬마 요리 천재 산해와 진미', '지구를 지키는 생명의 수호천사' 등 4권으로 구성됐다. <애니북스·각 5천900원>

▲네버랜드 옛이야기 그림책-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이야기들을 묶은 시리즈. 팔죽을 잘 수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호랑이를 알밭, 자라, 멍석, 지게가 힘을 합쳐 혼내준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피카소 이야기=르네상스시대의 미켈란젤로에서부터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화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다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화가 시리즈. 스페인이 낳은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작품세계 등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룸·9천700원>

▲훌륭한 꼬마의사=맛벌이 부모를 둔 주인공 어린이가 텅 빈 집안에서 애완동물들과 병원놀이를 하며 동물환자들의 고민을 들어준다. <이룸·9천7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시황은 추한 외모 때문에 폭군 됐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묘사를 바탕으로 그려진 진시황의 초상(위)과 폭군의 광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시황의 병마용(아래).

광기의 제왕학 자오량 지음

황제의 칭호를 맨 처음 사용했던 진시황(BC 259~BC210)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나라를 건설,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시행했다. 군현제 도입, 문자·도량형·화폐의 통일, 전국적인 도로망 건설 등을 통해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만리장성, 아방궁, 병마용 등 엄청난 규모의 유물이 말해 주듯 포악한 군주로도 이름나 있다. 사상의 통일을 내세워 벌인 분서갱유는 진시황의 폭정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 사남기 때문에 황제가 된 것일까, 아니면 황제가

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을 내린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은 "새가슴에 말안장 모양의 매부리코, 말의 눈을 연상케 하는 가늘고 긴 두 눈과 푹 튀어나온 눈알"을 지녔다. 이 때문에 진시황은 어려서 정신적 좌절을 겪어야 했고 심리발전 과정에 큰 상처가 돼 우울한 성격이라 불리는 특수한 심리행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漢) 나라 건국황제인 유방(BC247~BC195)이 2%의 카리스마가 부족했음에도 황제에 오른 것은 진시황에 놀려 준 인심 때문이었다. 서민 출신인 유방의 소탈한 열정을 그를 황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능률한 용모와 호탕한 성격을 가진 유방은 주위로부터 '유형' 또는 '유세'로 불릴 정도의 평범한 '필부(匹夫)'였다.

한 고조 유방·여제 무척천 등 중국 황제 6명의 내면 세계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들춰보기

됐기 때문에 사나워진 것일까. '광기의 제왕학'은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 한 고조 유방, 여제 무척천, 명 태조 주원장, 광서제, 부의 등 중국 황제 6명의 내면세계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역사학 교수인 저자 자오량은 심리역사학과 발견방법학이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이들을 해석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명과 인물에 대한 각주가 없다는 것. 저자가 이들 6명의 황제에게 주목한 이유는 성격 형성과 사회화 과정, 인성의 발취 등 모든 심리학적 영역에서 특이한 전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가장 민감했던 시기에 권좌에 올라 중국 역사의 큰 획을 그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시황의 성격적 결함이 그의 추한 외모

자저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였던 무척천(624~705)의 카리스마와 갖가지 기상천외한 행동들이 그녀의 성도착적 심리 메커니즘의 결과였다고 단언한다. 또 명(明) 나라 초대황제 주원장(1328~1398)이 군주독재권의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공포정치는 그의 불우한 유년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청(淸) 나라 11대 황제인 광서제(1871~1908)와 마지막 황제 부의(1906~1917)는 봉건 왕조체제의 붕괴와 급진적 서구화 앞에 극도의 심리적 혼란과 물리적 격변을 겪어야 했던 비운의 군주들이었다. 청조 말의 일련의 사건들은 황제의 심리적 결함과 왕조 사회의 한계가 빚어낸 참극이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스미디어·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외교가와 정치가 오성과 한음

조선 최고의 공직자·최범서 지음

'오성과 한음'의 돈독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위인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오성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며, 한음은 명보(明甫) 이덕형(李德馨)이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재기발랄한 죽마고우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교유한 시점은 과거를 거쳐 벼슬길에 접어들었을 때다. '조선 최고의 공직자'다시 쓰는 오성과 한음은 익살, 해학의 주인공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오성과 한음을 역사적 사실에 비해 외교가와 정치가로 다시 복원한 책이다. 오성과 한음은 선조와 광해군 재임기에 나라를 짊어졌던 명재상이다. 임란의 영웅으로 이순신과 서애(西涯) 유성룡(柳成龍)이 꼽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조맹받지 못했다. 이항복은 임진왜란 7년 동안 국방을 맡은 병조판서를 다섯 차례나 역임하고, 원수를 한 번, 체찰사를 두 번이나 맡았다. 이덕형도 병조판서 두 번, 체찰사 두 번, 훈련도감 제조 두 번을 역임했다. <기림기획·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리스·터키 고대유적 답사 여행기

에게, 영원회귀의 바다 다카시 지음

국내에 '사색기행'(2005·청어람미디어 펴냄)으로 잘 알려진 일본 칼럼니스트 다치바나 다카시와 사진주간지 '포커스'의 보도사진가 스다 신타로의 '그리스·터키 고대유적 여행기'가 책으로 나왔다. '에게, 영원회귀의 바다'는 다치바나 다카시와 스다 신타로가 1982년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40일 동안에게해 인근 고대유적을 답사한 흔적이다. 책은 일본에서 2004년 출간되까지 다치바나 다카시가 관여했던 '독히드레관'(1986년 끝남)으로 인해 20년 이상 늦게 빛을 봤다. 이들은 카르타고에 멸망한 그리스의 손꼽히는 식민도시 시칠리아 섬의 세리누에, 죽은 자들의 석관 1천200개가 널려 네크로폴리스, 이오니아(현 터키)의 그리스 고대도시 미레투스 등 40일 동안 8천km의 여정을 소화했다. '글 반, 사진 반'인 이 책은 그 자체로 고대문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여행이다. <청어람미디어·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인생 한편의 책 이여령의 '디지로그'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날로그를 이야기한 책이 다. 그것도 저자의 풍성한 지식과 현란한 필체로 철저하게 '먹는 것'으로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맛깔스럽게 요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여령이라는 재담꾼이 풀어내는 한 바탕 언어의 유희처럼 책갈피를 넘길 때마다 읽는 재미에 빠져들게 한다. 저자가 첫 문장부터 일관되게 붙잡고 가는 화두는 '먹는 것'. '먹는 것'을 '디지로그'라는 신조어를 통해 신묘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한류(韓流)마저 '디지로그'로 풀어 낼 정도다.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인 '디지로그(digilog)', '먹는 것'을 통해 '디지로그'를 설명하는 저자의 해박함과 지적 메타포에 다시 놀란다. 모든 감각은 양자화해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 천만 번 까무러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금니로 씹는 미각의 맛'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보화 시대 디지털화 할 수 없는 마지막 아날로그적인

디지털에 정(情)을 불어 넣자

영토가 음식스러워 문화적 의미이자 정보를 교환하는 미디어라고 설명한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한국인들은 시루떡을 돌리는 것으로 온 동네에 정보를 알렸다.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칩 회로를 타고 오지만 시루떡이라는 아날로그 정보만 포효포효는 누렁길을 타고와 놀라움을 동반한다고 설명한다. 인터넷시대 디지털의 정보가 차갑고 아파트 생활이 차가울수록 따뜻하고 행복한 시루떡 돌리기와 같은 아날로그가 그리워진다. 정(情報)은 정(情)을 알리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인터넷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체온을 느낄 수 없다. 1과 0으로 만들어 내는 비트의 세상은 무정(無情)이다. 오히려 정보사회는 무엇보다 정(情)이 있어야 한다. 첫가락은 하나로는 음식을 집을 수 없는 짝으로 돼 있다. 오늘날 IT 도구들도 짝가락처럼 짝(pair)이다. 상대가 있어야 메일과 채팅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저자는 첫가락의 정신을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정, 믿음, 인터랙션(interaction)이라는 상호성으로 설명한다. 동거숙사식(東家宿西家食)의 고사를 '컬처기 기술'로 설명하면서 밥과 오케라가 합쳐져 '밥페라'라는 크로스 오버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이처럼 서로 모순적이고 대립하는 것을 통합하는 기술의 끝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하나로 융합하는 '디지로그'이며 퓨전이다. 차갑고, 과학적이고, 숫자적인 디지털에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자는 것이 디지로그의 세상인 것 같다. 다소 맹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계산적이지 못하지만 정(情)이라는 감성을 디지털에 불어 넣으면 디지로그로 변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동감한다. 마치 로봇에 사람의 따뜻한 피가 흐르게 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임의수 <김대중컨선편센터 사장>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2111-602-2522
(02)234-8216, 2111-609-0989
(02)471-4911, 4911-827-0678
(02)383-5221, 011-609-5221
(02)223-1140, 5210, 2111-602-2522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2111-609-0989
(02)471-4911, 4911-827-0678
(02)383-5221, 011-609-5221

민음공인중개사
(02)471-4911, 4911-827-0678
(02)383-5221, 011-609-5221

하이링크 컨설팅
(02)383-5221, 011-609-5221
(02)223-1140, 5210, 2111-602-2522
(02)234-8216, 2111-609-0989
(02)471-4911, 4911-827-0678
(02)383-5221, 011-609-5221

전원공인중개사
(02)223-1140, 5210, 2111-602-2522
(02)234-8216, 2111-609-0989
(02)471-4911, 4911-827-0678
(02)383-5221, 011-609-5221

한일지도(주)
(02)529-1409, 010-2466-1409
(02)223-1140, 5210, 2111-602-2522
(02)234-8216, 2111-609-0989
(02)471-4911, 4911-827-0678
(02)383-5221, 011-609-5221